

# 1조5천억 투입 지리산 문화권 개발

## 정부, 2018년까지 전남·전북·경남 28곳 고유문화 관광지 조성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 예산 절반 배정...전남 관광개발 탄력

지리산 문화권 개발사업과 천혜의 해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남지역 내륙과 해안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2018년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에 걸쳐 있는 지리산 문화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데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계획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전남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과 전북, 경남을 지리산 문화권으로 묶어 고유문화 개발 28곳 1천31만㎡와 도로 16곳 91.2km 개설에 총 1조5천1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의 지역 고유문화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말까지 수행했으며, 주민공람과 해당 광역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권 3개 시·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될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계획사업도 최근 최종 확정되면서 전남 관광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남해안 클러스터 개발 총 사업비 7천479억원 중 52%인 3천850억원이 전남에 배정돼 국비가 1천296억원, 지방비 1천316억원, 민자 1천238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남은 국비 854억원, 지방비 1천316억원, 민자 139억원 등 총 2천204억원이 투입되며, 부산은 국비 518억원, 지방비 789억원 등 1천307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민자사업비가 배정 사업비 중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민자유치 사업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사업 대상 지역은 목포, 여수, 순천, 보성,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이며, 개발 계획에는 섬, 크루즈, 이순신, 습지, 공룡 등 5개 핵심 테마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27개, 공동 추진 진흥사업 10개 등 총 37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

완도 세계영웅해양공원(420억원) ▲목포 고하도 충무연수원(사업비 205억4천만원) ▲해남 명랑대첩 테마공간(201억원) ▲진도 이순신 명랑대첩 승전광장 조성(135억원) 등이 있으며, ▲여수 사도·남도 관광지(1천124억600만원) ▲신안 증도 슬로우타운(580억원) ▲진도 조도 전망의 섬(371억원) 등 섬을 테마로 한 사업들이 있다.

또한, 크루즈를 테마로 한 여수화양관광단지

(267억1600만원)와 습지를 테마로 한 순천만 습지센터(430억원), 공룡을 테마로 한 보성 비룡공룡공원(116억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3개 시·도 공동 추진 사업으로는 ▲명랑대첩제 ▲여수 이순신거북선축제 ▲동북아 평화제 개최 등이 있으며, ▲공룡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공룡관광코스 상품개발 ▲습지 관광해설사 양성프로그램 ▲크루즈 국제관광홍보 등이 확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계획에 전남이 건의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된다. 지리산 문화권 개발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남 관광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임정수립 90돌 제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광주수피아 여중·고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광복회 회원 및 학생 800여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 상무1지구 당구장·PC방 설립 허용 일곡·봉선지구 규제 완화 개발 촉진

### 광주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정

광주시가 조성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상무1지구, 일곡지구, 봉선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물 용도·층수 규제, 건축선, 옥외광고물 규제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시는 우선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을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까지 일곡·봉선지구의 변경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은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 규제로 인해 그동안 상무1지구 내에 들어설 수 없었던 당구장이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이 신규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 규제, 층별 규제 등으로 공지로 남아있는 상무1지구 내 미개발지들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설 지경이 주목된다.

상무1지구의 경우 기존에 10개 권역으로 세분

돼 건축물 용도까지 지정하는 상세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건축법 등 관련법이 수 차례 개정되면서 신규로 허용 가능한 용도와 층수 등을 재설정한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각 권역 별로 입지가 제한돼 있던 서점, 제과점, 당구장, 청소년 게임제공업, 통신용 시설 등 10여 개의 용도가 입지가 가능하게 되며, 지하에만 가능했던 일부 시설도 지하와 1층 등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무1지구 내 공지로 남아 있는 미개발지는 90여 개 필지에 달한다.

시는 상무1지구 외에 일곡·봉선지구는 다음 달에 초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련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중 법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억9천5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이들 3개 지구 4.12km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올해 말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발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2025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설문조사와 의견제시 코너를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광주 도시의 문제점과 당면 과제, 바람직한 미래상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지표를 수용해 광주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며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인도네시아 발리주주 솔라웨시 주지사가 13일 오전 솔라웨시 주청사에서 우호교류 및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의향서를 교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10여개 지역 기업 印尼 115만ha 자원 개발

### 전남도-솔라웨시주 정부 양해각서

전남도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115만ha 규모의 아시아 자원기지를 구축한다. 이는 전남도 면적(122만ha) 보다 큰 규모이며, 전국 16개 광역단체중 해외 자원기지를 확보하기는 전남도가 처음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인도네시아 솔라웨시주 청사 회의실에서 주 정부 관계자와 현지 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합의서와 자원개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현지 민간기업과 금융석유화학(주), 전남사료 등 도내 10여개 민간기업이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으며, 양 지역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양에너지와 농업, 조림, 광물, 에너지 효율 등 5대 분야의 자원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5대 분야는 ▲우뭇가사리 생산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생산 ▲옥수수, 카사바, 팜 등 생산농장 경영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한 조림사업 ▲광물 자원 개발사업 ▲기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이 다. 이번 협력으로 전남도는 양식장 100만ha를 비롯한 옥수수밭

10만ha, 산림조림지 5만ha 등 총 115만ha를 솔라웨시 주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분야별로는 금융석유화학(주)은 우뭇가사리 양식지 100만ha를 중부 솔라웨시주로부터 제공받아 연간 60만t 이상의 바이오에탄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주)전남사료는 인도네시아에 10만ha의 옥수수 등 사료작물 공급지를 확보해 전남 농축산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성종합조경 등도 산림개발을 위해 현지에 5만ha의 조림지를 확보했으며, 이밖에 니켈 등 희유광물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현지 주택 개량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도 이 지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협약식에서 “양 지역은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 높은 발전 잠재력 등 비슷한 점이 많다”며 “지방정부 간 우호교류와 자원개발 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 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권일기자cki@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10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병후, 병후유해 제거, 피로회복
- 눈의 건조감과 통증,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년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벅지 근육, 수족저변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